

## 감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오픈사전 앱 개발

조훈기\*, 이진훈\*, 최영완\*, 김지심\*, 김경아\*, 안유정<sup>o</sup>

<sup>o</sup>\*명지전문대학 컴퓨터공학과

e-mail: liqmetal922@gmail.com\*, {dlrjsngns13, dhks76}@naver.com\*,  
{jisimkim, kakim}@mj.ac.kr\*, youjahn@gmail.com<sup>o</sup>

## Development of Open Dictionary for Emotional Communication

Hun Gi Jo\*, Geon Hun Lee\*, Yeong Wan Choi\*, Ji Sim Kim\*, Kyong Ah Kim\*, You Jung Ahn\*

<sup>o</sup>\*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Myongji College

### ● 요약 ●

사람들의 대화에 사용되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나 개인마다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단어에는 단순히 사전의 정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삶의 시간 또한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의미로 단어를 사용함에 따라 야기되는 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어의 일반적 정의뿐 아니라 개개인 각자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오픈사전 앱을 개발하였다. 일반사전에서는 공공 API를 통해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 사전을 사용하며, 오픈사전에서는 웹 서버를 연동하여 MySQL에 사용자가 정의한 단어를 등록한다. 또한 본 앱에서는 해상도별 이미지를 구현하여 다양한 화면에 대응하였다.

**키워드:** 감성(emotion),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오픈사전(open dictionary)

### I. Introduction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는 사전에 정의되어 있지만 개개인이 느끼는 단어의 온도는 조금씩 다르다. 단어에는 단순히 뜻만이 아닌 단어를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삶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언어의 온도』 중 “그냥”이란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문장[1] 같은 단어라도 사용자가 단어를 사용하는 맥락과 감성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의 의미로만 단어를 해석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발화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2].

이에 우리는 기존의 사전에서 벗어나 사용자가 자신만의 사전을 만들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였다.

위해서 웹사이트의 PHP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작업을 요청한 후 DB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받아와 JSON 형식으로 인코딩하여 단말에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 2. 유사 애플리케이션

본 연구에서는 2종의 유사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하였다. 단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여 공유하면 그 의미에 대해 사용자들이 개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풍부하고도 감성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썸’은 하루 두 개의 단어를 글감으로 제공하여 사용자가 글을 더 쉽게 등록하게끔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2]. ‘모씨’의 경우에는 해시태그 기능을 이용하여 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댓글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뽑힌다. 다만 댓글을 통해 비방하는 경우도 많아 순기능으로만 작용하진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 II. Preliminaries

#### 1. 안드로이드와 웹서버 연동

안드로이드에서 MySQL DB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는 웹서버를 연동하여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처리한다. DB에 데이터를 저장·조회·추가·수정·삭제할 때 PHP 등의 서버 프로그램을 거쳐 요청하고 처리된 결과를 단말에 전달한다.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 III. The Proposed Scheme

본 앱은 일반사전과 오픈사전을 조화하고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외에 자신이 선호하는 단어를 저장할 수 있는 ‘나의 단어사전’이라는 단어장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다양한 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 대응 가능 또한 구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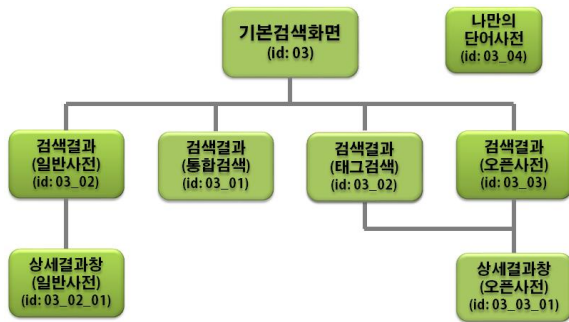


Fig. 1. Application Structure(Search Part)

**(1) 일반사전 검색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샘 API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API를 통해 제공받는 xml을 파싱하여 인터페이스에 맞게 단어를 출력하여 검색할 수 있다. 단어를 검색할 때 입력한 단어를 인자로 '사전 검색' API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ListView로 출력한다. 각 항목에는 '단어 열기'에 필요한 Key값과 ListView에 간단히 표시될 단어의 정보를 저장한다. ListView의 항목을 터치 시 '단어 열기' API에 Key값을 인자로 하여 상세정보를 출력한다.

**(2) 오픈사전 검색 :** 사용자들이 직접 단어의 의미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사전으로 본 앱의 핵심기능이다. API를 통해 사전의 데이터를 빌려오는 일반사전과 달리, 오픈사전은 안드로이드와 웹서버를 연동하여 MySQL을 사용하여 구현하였다.

DB에 저장되는 정보는 단어를 등록하는 회원의 ID와 단어의 표제어, 뜻풀이, 태그 등이며 이때 등록된 태그를 통해 다른 사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종류의 단어를 더욱 쉽게 검색하고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단어의 의미를 조회할 수 있다.



Fig. 2. Open Dictionary and My Dictionary

**(3) 화면 대응 :** 여러 종류의 기기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콘과 배경 이미지를 해상도별 폴더로 구성하여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하여 대응하였다.

#### IV. Conclusions

본 앱을 통해 사용자들은 단어의 의미를 여러 시각에서 고찰할 수 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의 의미를 등록하여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며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로는 현재 유행하는 단어 혹은 신조어를 순위로 표시해주거나 사용자에게 등록할 가치가 있는 단어를 추천하는 기능 등을 제공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과 유용함을 더 높일 수 있고, 개인 간의 소통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소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REFERENCES

[1] Lee. K. J. (2016). The temperature of Language. Seoul: Malgulsite.  
 [2] Choi. H. C. (2018). "The Meaning Anaysis of the Text Utterance(=Discourse) in Modern Korean," Journal of Korean Culture, Vol. 40, No. 2, pp.7-40, 20, Feb. 2018.  
 [3] Um, H. U. (2018, January). The secret to winning a writing app made by an engineering student is, MK News, Retrived March, 20, 2018,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27110>